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청신호 명동' 홍보관 개관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1대1 맞춤상담 진행



1 SH공사 김세용 사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초청자들이 온라인 집들이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3 청신호 명동 홍보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청신호(靑新戶)' 홍보관이 지난 4월 9일 서울 명동에서 온라인 개관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야심 차게 선보인 '청신호' 주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 명동 YWCA 건물 2층에 홍보관을 열었다고 밝혔다.

YWCA 회관에 마련된 홍보관은 총 405㎡ 규모로, 2층에는 청신호 홍보전시관, 3층에는 청신호 홀과 스마트 워크 오피스가 마련됐다. 홍보관은 청신호 브랜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새로운 주거정책 그룹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건립됐다. SH공사는 단순 홍보 기능을 넘어 새로운 주거 문화를 제안하고,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펼치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청년 맞춤형 홍보관답게 스마트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 점이 눈길을 끈다. 청신호 주택 내부를 가상현실(VR)로 체험할 수 있는 '청신호 라이프스타일 VR존', 주택 타입별 특징과 조감도를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청신호 제작소', 청신호 주택을 간접 경험하는 '다면 입체영상관' 등이 첨단 IT기술을 적용해 조성됐다.

청신호 명동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정책대상자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눈높이에 맞춘 주거문화 프로그램, 청년단체 활동을 위한 공간대관, 명동 직장인 커뮤니티 모임 지원 및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또 홍보관 안에 주거 관련 법이나 금융지원 등 1대1 무료 맞춤 상담을 할 수 있는 청신호센터를 운영, 청년·신혼부부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세용 사장은 "청신호 명동 홍보관을 단순 홍보관 기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이들을 위한 주거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주거정책 의제를 만들어 가는 열린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청신호 명동 홍보관 개관식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집들이 형식으로 진행된 온라인 개관식에서는 다양한 서울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 10인을 초청해 김세용 사장과 함께하는 토크쇼를 메인 행사로 진행했다. 서울 살이에 대한 각자의 경험담을 주고받은 토크쇼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⑦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이 커졌다 커졌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호~옴
청신호

서울시 공공주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년의 당당한 자립과
신혼부부의 꿈을 실현하도록
청신호로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청춘 주택사업!

스마트시티 서울
스마트라이프 청신호



청신호
SMART HOUSING

신혼집은
서울시家
신규 신혼부부 절반인
연 25,000호 지원

집 마련 걱정 없도록!
공급확대
• 주택공급 연 14,500호
• 신혼부부 매입주택, 재건축 매입, 역세권 청년주택

돈 걱정 없도록!
금융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연 10,500호
•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까지
• 이자지원 최대 연3.0% 이내

아이 키움 걱정 없도록!
다자녀 지원
• 추가부담 없이 더 큰 임대주택으로
• 보증금, 월임대료 지원

찾아달 필요 없도록!
정보강화
• 신혼집 찾기 원스톱 '서울주거포털' 오픈
• 25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에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